
제45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11.01.~11.0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책을 말하다		
방송일자	2019. 11. 01.	시청률	0.000

【총 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출범을 맞이하여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라는 주제로 대북 정책의 역사를 정리해보고 그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민주평통 19기가 출범하면서 왜 인적구성 변화를 시도했는지,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롭게 변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에 대한 전망과 ‘평화경제’의 필요성과 필요조건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정부와 국민 사이의 통일에 관한 중간자적 촉진자 역할’을 강조하고 ‘평화경제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정책적 좌표와 연계해서 설명해 민주평통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자문위원을 ‘국민참여공모제’로 모집하고,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전에 없던 것으로 앞으로의 변신을 기대하게 했다.

‘평화경제의 필요성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경제적 협력에서 사회문화적 공동체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기까지 보폭을 조절하면서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의미 있게 다가왔다.

- 평화경제, 초석 다진다. 민주평통 19기 출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출범 소식을 전하고 그 역할과 필요성, 자문위원의 자격과 보완된 점 등을 소개했다.
-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의 성과
 - 지난 해 정부가 보여준 대북관계 진전이라는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현재 북한과의 소통이 난관이 부딪힌 이유를 설명했다.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건
 -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봤다.
- 평화경제 실현의 과제
 - 평화경제의 비전과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DMZ 인근 국제경제특구 건설 효과와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봤다.

【참고사항】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의 성과’란 자막에서 ‘새로운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19. 11. 02.	시청률	0.186

【총 평】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제10회 <첩첩산중 정선아라리>는 정선 간헐천인 덕산기 계곡을 배경으로 자연의 소리와 함께 당시 뗏목 운송을 시연하며 정선 아라리 구비 전승민요인 '뗏목 아라리'의 구성진 소리를 사운드멘터리로 채집했다.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처럼 자연의 소리, 아름다운 풍경, 사라지는 정겨운 소리를 담아내는 '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콘셉트를 잘 살려내고 있는 수작이다.

옛장수의 옛가락 장단에서 부터 잣나무 바람소리, 노부부 칼국수 먹는 '후루룩 소리, 싸리비 소리, 막대기로 콩 떠는 소리, 구전으로 이어진 구성진 농요 '아라리'까지 정밀하고 섬세하게 현장음을 잡아낸 점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첩첩산중 가을의 소리와 사라지는 '뗏목 아라리'를 보여준 기획이 돋보였고 소리 기록자의 탐방 포맷이 소구력을 높였다. 특히, 김영일 소리 기록자가 정선 계곡을 찾아 첩첩산중 자연의 소리와 정선아라리를 담은 스토리 형식의 포맷이 주목도를 높였다. 소리 기록자의 적절한 인터뷰 구성과 간단한 해설도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구비 전승민요 '정선아라리' 소개 및 소리꾼과의 인터뷰, 70대 노부부의 일상 탐방과 구성진 농요 '아라리' 채집 등이 눈길을 끌었고, 당시 뗏목 운송을 시연하며 소리꾼을 통해 구비 전승민요인 정선아라리를 들려주었다.

또, 경북궁 건축용 금강소나무를 아우라지에서 마포나루터까지 뗏목으로 운송할 때 모습을 시연하며 '정선 아라리' 민요를 들려주었다. 옛장수의 옛가락 장단에서 부터 잣나무 바람소리, 싸리비 소리, 구전 등 정밀하고 섬세하게 현장음을 잡아낸 점이 돋보였다.

【참고사항】

김영일 소리기록자는 엄순복님의 구비전승민요 전수자의 가락소리를 들은 후, 시청자 눈높이로 쉽게 가사를 풀어 설명해 주어 소리 기록자라는 전문성과 감각을 발휘했다.

또 엄순분님의 손끝에서 우러나는 매운 시집살이 소리, 잣 까는 소리 등은 매우 담기 어려운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잘 담아냈다.

성우 임현주씨의 목소리는 이 프로그램에 매우 적합하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정선의 여유와 풍경을 목소리에 담아내려고 천천히 느낌 있게 읽는 모습은 좋았다.

그러나, 문장의 첫 어미를 너무 과하게 장음으로 빼낸 설정(하-아늘-, 가-아암히, 머-어얼리서, 가-아만히, 저-어영선, 무-우살도 고요하고 바-아람도 등)이 아쉬웠다. 매 문장 어미를 반복적으로 길게 늘어 빼다보니 지루하고 처지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귀에 거슬려 아름다운 영상과 풍경소리를 방해했다.

프로그램	메디컬 다큐 건강 더하기 행복		
방송일자	2019. 11. 03.	시청률	0.063

【총 평】

<메디컬 다큐 건강 더하기 행복>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기 질환'에 대해 방송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환절기를 맞아 호흡기질환 관련 정보를 전달한 아이템 선정이 시의성 있었다. 건강한 호흡기 관리법과 호흡기 질환의 치료 및 예방법을 밀도 있게 살피 유용했다.

지속적인 기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을 때 어떠한 호흡기 질환이 발생 되는지에 대해 건강 정보를 제공하였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자각 증상을 일깨웠다.

특히, 사례자를 통해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오는 호흡기 질환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임을 강조해 흡입력 있었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예방접종을 강조하고 이상 증세를 느낄 때 늦기 전에 치료받을 것을 권고해 적절했다.

【구성 및 내용】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세먼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호흡기 질환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성이 있었다.

방송 내용이 모두 노년층의 호흡기 질환이었는데 연령층을 나눠서 사례를 배분했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예방수칙으로 손씻기, 기침예절, 예방접종을 예로 들었는데 감기나 독감에 국한되는 내용이었다.

■ 68세 알레르기 천식 환자의 사례

- 봉제 공장에 다니던 젊은 시절부터 알레르기성 천식을 앓아 온 68세 여성의 천식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 과정을 소개했다.

■ 74세 기관지 협착증 환자의 사례

- 기관지 협착증 환자의 경우로 기관지 협착증을 결핵의 합병증으로 연관지어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 77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사례

- 오늘 소개된 질환 중 가장 위험한 경우로 금연과 질병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정상인과 비교하여 폐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공개해 경각심을 주었다.

【참고사항】

폐질환이 어떤 경로로 발생하고 왜 위험한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게 전했으나 보다 더 중요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진단과 치료 60%, 예방 40% 정도로 내용을 배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19. 11. 03.	시청률	0.274

【총 평】

도시의 건조하고 성공된 삶을 뒤로하고 8년 전에 귀농한 김철호(64)·김경희(55)부부의 “젊은이들을 위한 농촌의 꿈”을 소개하였다. 유명 입시학원의 성공적인 대표였던 60대 김철호 씨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귀촌을 결심한 배경과 정착 스토리, 그리고 정원과 텃밭을 가꾸는 농촌 일상이 그림처럼 그려져 흡인력을 높였다.

<자연에서 부자로 사는 법>은 귀촌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만 캠퍼스 8곳이나 둘 정도로 학원 부자였던 대표가 농촌에서 5만평 규모의 대형 사과 농장 경영에 도전하는 사례여서 평범한 도시민의 귀농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구성 및 내용】

유명 입시학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60대가 귀촌을 결심해 사과나무 농장을 경영하며 인생2막을 사는 성공적인 귀농 과정이 소개돼 노후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 기획이 긍정적으로 보였다.

다큐형식으로 귀농 배경과 과정, 비전 등이 섬세하게 그려진 점이 돋보였고, 귀농 8년차 부부의 전원주택에서의 소소한 농촌의 일상이 소개돼 흡인력을 이끌었다.

또, 옛날 방식으로 퇴비로 지력 높이기, 가공공장 운영, 사과 전문가 양성 등 새로운 도전 과정이 소개돼 주목도를 높였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주인공 부부가 강원도 인제군으로 어떻게 정착하게 됐는지, 농장 시스템을 갖추기 까지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농장 운영의 어려움은 없었는지를 담지 못해 시청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냈다. 프로그램적으로 주인공 내면의 이야기를 담지 못했다. 귀농을 희망하거나 귀농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관련 노하우들을 살짝 언급해줬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참고사항】



자막 오류

주인공이 과수원을 권혁철 직원과 둘러보는 장면(19:40)에서 하단 자막에 오타 발생
‘할아버지’ → ‘할아버지’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19. 11. 05.	시청률	0.058

【총 평】

<KTV대한뉴스>는 기획성, 심층화, 다양성, 정보성이 돋보여 KTV 대표 종합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주목도를 높였다.

미세먼지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감축하기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포럼, 한중 MOU체결 등 관련뉴스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심층성을 강화했다.

또, 문재인 정부 2년반 기획으로 남북관계를 돌아보고,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깊이 있게 보도한 기획도 돋보였다. <더 MORE뉴스>와 <똑똑한 정책뉴스>는 생활정보 제공으로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했다.

【구성 및 내용】

주요 아이টে을 연계 보도해 심층성을 높이는 뉴스 편집도 긍정적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모두발언 등을 리포트 3개로 집중보도하고 <유용화의 오늘의 눈>과 <오늘의 브리핑>에서 깊이 있게 다뤄 주목도를 높인 점이 탁월하다.

<더 MORE뉴스>에서는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등 3건을 소개했고, <똑똑한 정책뉴스>에서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와 혜택 내용이 자세히 다뤄져 친절한 정보 제공 역할을 했다.

- 한일, 갈등해결 의지 확인, ‘신남방 2.0’ 속도
 - 아베 총리와 13개월 만에 공식석상에서 대화, 양국 관계의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원칙 확인
 - 한일 양국 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 평가, 고위급 협의 언급
 - RCEP 협정문 타결로 유망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회
- SNS에 글 올려, ‘아베 총리와 의미 있는 만남’
 - 태국 방문 일정 이후 SNS에 아베 총리와의 만남 및 RCEP 타결 등에 대한 언급
-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 수출환경 개선
 - 아시아 15개 나라가 참여한 세계 최대 FTA가 7년 만에 타결, 내년 정식 서명
 - 국내에서는 RCEP 관련 산학연 논의
- 학종 자소서 편법 기재 366건, 고교 서열화 확인
 -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실시 결과 기재금지 위반 366, 자소서 표절 228건 적발
 - 과학고, 영재고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에 비해 2.9배 높음
 - 고교 정보 제공방식 개선 및 자소서 반영 축소 진행
- 겨울철 감염병 주의, ‘예방접종 당부’
 - 인플루엔자 발생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으므로 예방접종 당부

프로그램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일자	2019. 11. 05.	시청률	0.006

【총 평】

오늘은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에 관한 가짜뉴스를 다루었는데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인상적이었고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가 경제 분야에 여러모로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더욱 관심 있었다.

‘미국 정부 압박에 개도국 지위 스스로 포기한 정부’라는 제하의 기사를 앞 뒤 맥락을 잘 따져서 허와 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포기하더라도 기존의 특혜는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한 점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정부가 결정한 WTO 개발도상국 특혜 중단이 향후 다른 국제 협약에 미칠 영향까지 확장성 있게 살펴 유용했다.

【구성 및 내용】

■ 팩트체크1: 개도국 지위 경제 규모상 유지 어렵다 vs 대책 없어

첫 번째 팩트 체크에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역시 정부의 브리핑 장면이었다. 이 장면을 삽입해 정부가 언급한 부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가짜뉴스의 잘못된 점,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니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잘 보여주었다.

이어서 개도국 지위 포기와 특혜중단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어떤 면에서 다른 의미인지 꼼꼼하게 설명해준 부분도 좋았다.

■ 팩트체크2: 수입쌀 관세 줄어 VS 보조금 줄어

두 번째 팩트 체크인 수입쌀 관세와 보조금에 대해서는 개도국 특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다루었는데 팩트 체크에 관세와 보조금이 명백하게 포함이 되어 있었던 만큼 이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주었으면 더 쉽게 팩트를 체크할 수 있었겠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대만, 브라질, 아랍, 싱가포르 등의 위기 사례를 살펴보는 대목도 상당히 흥미로웠지만 너무 짧게 넘어갔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해 신빙성은 떨어졌다. 후반부에는 윤성욱 교수가 전공을 살려 앞서 나온 가짜뉴스들을 지적하고 올바른 취재 정신과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강조를 했는데 맞는 말이지만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덧붙일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대신 국민들의 불안감을 다독여 줄 수 있는 멘트를 준비했어야 더 적합했을 것 같다.

【참고사항】

미디어영상학과 윤성욱교수의 경우 국제통상과 협약에 대한 전문적인 코멘트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통상관계 부처의 담당자가 나와 정확하게 설명해야할 부분이 많았다. 오보나 가짜 뉴스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라는 무게를 생각할 때 진정한 전문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방송일자	2019. 11. 06.	시청률	0.052

【총 평】

전반적으로 국무회의 보도와 소방의 날 기획뉴스, 겨울 전염병, 달 표면을 그대로 재현한 진공챔버, 학종과 자소서 편법 기재 행위 등 불거리와 함께 시사성 있는 뉴스들로 다루어졌다.

특히, 소방관 체험 전시실 리포트가 기억에 남는데 단순히 소방의 날을 앞두고 형식적으로 취재했다는 느낌보다는 소방관의 희생정신을 느낄 수 있을 법한 각종 전시물들을 담담한 느낌으로 공개해서 더욱 감동을 배가시켰다.

<S&뉴스>에서 다룬 세 가지 내용은 각기 다른 분야의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잘 선정해서 다루었고 재미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잘 담아냈다.

【구성 및 내용】

채효진 기자의 금강산 관광 정책토론회에 관한 취재가 톱뉴스로 준비되었는데 북한의 의도를 충분히 예상하면서 북미협상의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박지선 기자가 취재한 겨울철 감염병에 대한 리포트는 이달 말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준비해서 아직 접종을 하지 못한 시청자들에게 한 번 더 접종의 필요성을 당부하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곽동화 기자가 취재한 소방관 기념관에 관한 리포트가 오늘 내용 중 가장 돋보였다. 맨 처음에 고문서를 통해 금화도감의 유례부터 밝혔는데 그 문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표기됐으면 좋았겠다.

이후에는 소방관복의 변천사와 각종 화재 사건 영상과 사진 기록, 초기 화재 예방 점검 계획등이 소개되었고 화재 시 불타버린 소나무와 얼마 전 어린이를 구하기 위해 화마 속으로 직접 뛰어든 소방관의 다 녹아버린 실제 소방관복을 공개해서 애잔함과 몽클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임소형 기자가 취재한 학종 자소서 편법 기재에 관한 리포트도 굉장히 시사성이 있었는데 고교 평준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듯한 느낌도 충분히 주었다. 학종과 자소서의 편법 기재 행위에 대해서는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따로 없다는 것을 지적한 대목도 상당히 시사성이 있었다.

<월드투데이>에서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한 것에 대해 다루며 각국의 부정적인 반응을 첨부해서 그 부당성을 시사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S&뉴스>에서는 팽수의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EBS의 한 캐릭터를 소개했는데 그 매력포인트를 다각도로 분석해 많은 재미를 주었다. 직장인 유튜버에 대해 다룬 내용 역시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표현해준 소식이었고 후반에는 과기부의 1인 미디어 팩토리 창작자 양성지원센터 건립 소식도 함께 덧붙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프로그램	KTV 쟁점토론		
방송일자	2019. 11. 07.	시청률	0.001

【총 평】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지시에 이어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학종 제도 개선과 정시 비중 상향 조정에 나선 가운데 <쟁점토론> 방송 당일에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으로 오는 2025년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에 대한 큰 이슈 두 가지 방안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증폭됐다. 이런 시점에서 <쟁점토론>이 ‘정시 확대, 교육공정성 강화되나?’를 발 빠르게 긴급 진단한 기획은 탁 월했다. 정시확대를 놓고 4명의 패널은 수능 우선이나, 학종 우선이나에 따라 견해와 주장이 달랐다. 당일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놓고 패널들이 펼친 찬반 쟁점토론도 정책의 피드백 차원에서 의미가 컸다.

<쟁점1>과 <쟁점2>를 구분해 ‘고교 서열화 해소 가능한가?’ ‘교육개혁,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해 토론의 집중도를 높인 점이 눈길을 끌었다.

【구성 및 내용】

문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의 정시확대 발언으로 더욱 주목받은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학생 부종합전형과 정시확대 간 이견, 교육공정성 강화,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쟁점 주제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 정시확대의 역할’, ‘정시확대를 한다면 학생부전형에 비해 정시비율 확대의 적절한 범위’, ‘고교 서열화 해소’,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의 고교 서열화 해소 도움 여부’, ‘수능 논술과 서술형 문항 도입’ 등이었으며 프로그램 중간 시청자 참여 댓글을 소개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핫이슈인데다 패널 4명이 열띤 토론을 벌여 주목도를 높였고 공격적 질문과 직설적 이슈가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정시확대, 고교서열화 해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으로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줘 기획의도를 살렸으며, 패널구성은 교수와 교육분야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됐으나 찬반의견의 형평성은 이뤄졌다.

특히, <쟁점1>, <쟁점2>로 나누어 핵심이슈를 집중 진단해 메시지 전달력을 높인 점은 강점이다. 패널의견 제시로 교육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점도 긍정적이다. 찬반 패널과 사회자의 클로즈업 샷을 보여줘 토론 열기와 시각적 몰입도를 높인 점도 완성도를 제고하는 요소였다. 다만, 정책수요자들의 반응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참고사항】

<쟁점토론>에 출연한 패널 4명이 전부 남성이었는데, 교육분야라는 측면에서 여성전문가가 없었다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